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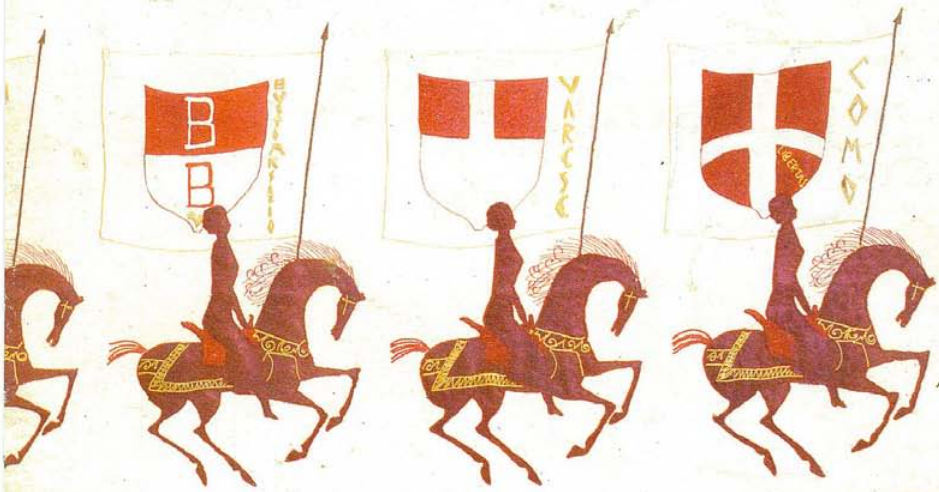
CEBSEN
FRA
NORGE



ANNO
1979



성도의 빛 5
1981



e la saggezza ovunque si trovino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차 례

대관장단	영의 음성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스펜서 더블류 김블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4
엔 엘도 태너	침례받기 위해 사십년을 기다렸읍니다	베시 리퍼 요우컴	10
매리온 지 롬니	자녀에게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함	존 엠 테일러	13
십이사도 평의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6
에즈라 태프트 벤슨	에델	수전 에이치 에일워드	20
마크 이 피터슨	월포드 우드립	21
리그랜드 리차즈	잡으라 강한 막대기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22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공기돌	로리 제이 윌슨	25
고든 비 힐클리	1,450킬로미터의 대평원을 맨발로	헬 나이트	29
토마스 에스 문슨	공책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채니트 브리감	33
보이드 케이 팩커	미로	맥스웰 티 스토운	36
마빈 제이 애쉬튼	엄하면서도 친절한 계명	닐 에이 맥스웰 장로	38
브르스 알 맥콩키	지역 지도자 메시지	김 창선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44
앨 톰 페리	해외 소식	46
데이비드 비 헤이트	지역 소식	48
제임스 이 파우스트					

교문

엠 러셀 발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눅크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제19호, 제17권 제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1981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유진 피탈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73KO PRINTED IN SEOUL, KOREA 5/81 International magazine

© 1981년
제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나는 이 교회가 널리 퍼져 번영하고 성장하여 커지며, 지상의 온 나라에 복음이 퍼지는 것과 비례하여 사탄의 권세도 일어서게 되리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데저레트 출판사, 1954년, 72페이지)

현재 우리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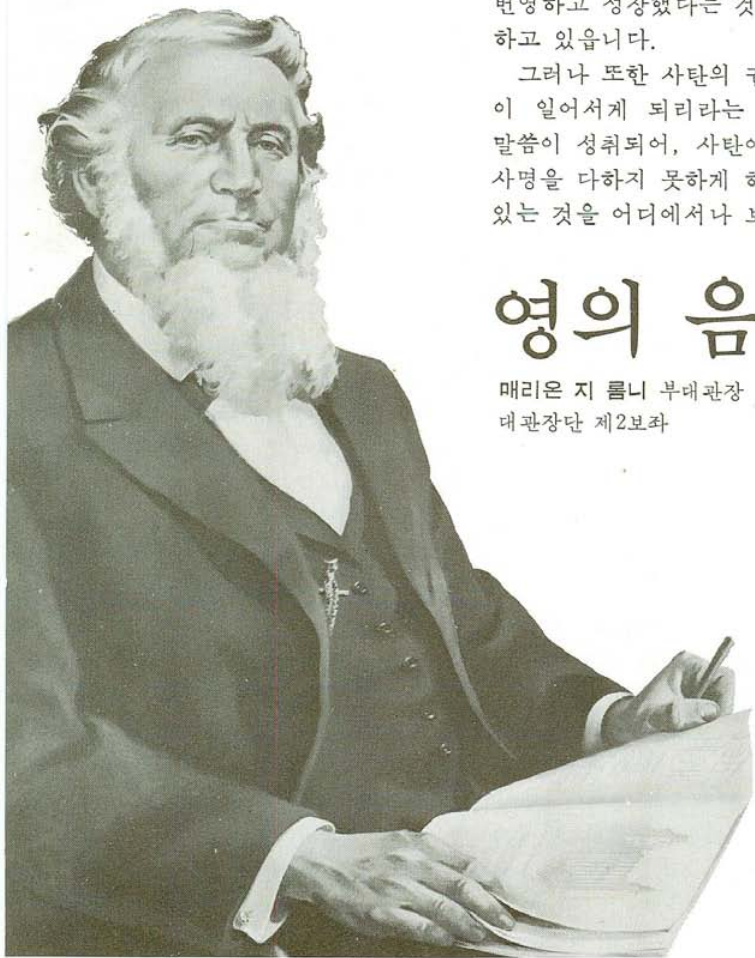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938년에만 해도 이 교회에는 126개의 스테이크와 36개의 선교부가 있었으며, 회원 수는 784,764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1977년말 현재로 이 교회는 885개의 스테이크와 158개의 선교부 그리고 약 4백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널리 퍼져 번영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탄의 권세도 그와 같이 일어서게 되리라는 영 대관장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사탄이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을 어디에서나 보게 됩니다.

영의 음성

매리온 지 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는 의심, 성적 도착, 매음 행위 및 모든 부도덕하고 부정행위 등이 있습니다.

태고적부터 부도덕하며 비천한 것으로 여겨져 혐오감을 자아내어 왔으며, 때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고, 또한 현재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킬 부정행위 관습이 부패된 우리 사회에서 널리 용납되고 받아들여져 그 기세를 떨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악한 가르침과 행위에 기만당하거나 타락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여 사악함을 구별하고 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방편을 이용한다면 그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음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필멸의 삶과 빠르된 육체 안에 불멸의 영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부모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온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가를 시험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서 3 : 25 참조)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와,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의 서로 상반되는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영향력을 받아 행동하게 되므로,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니이 2 : 27)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결정하여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결정에 속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비참하게 될 것인가는 바로 이러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인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지도 않은 채로 것처럼 큰 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올바른 처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편은 바로 영의 음성이며 우리는 누구나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

“주의 말씀은 진리인 연고니, 무엇이든지 진리이면 곧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이면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

“또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

“또 아버지께 새롭게 하사 너희에게 확인하여 주신 성약을 저에게 가르치시나니, 그 성약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확인되고 너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은 세상 사람을 위하여서도 확인되었는
나라.

“은 세상은 죄 가운데 처하여 흑암과
죄의 사슬 아래서 신음하나니,

“이로써 저들이 내게로 나오지 아
니하므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음을 너
희가 알게 되느니라.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연고니라.

“또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받아들
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음성을 알아
들지 못하며 또 나의 것이 아니니라.

“또 이로써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여 알 수 있으며 은 세상이
지금도 죄와 흑암 아래 신음하고 있는
줄 알리라.”(교성 84 : 43—53)

예언자 몰몬은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
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
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마음을 기
울여 혹 간악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을 악마
의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보라 나의 형제들아, 선과 악을 구
별하여 판단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라. 또한 이를 판단하는 일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아는 것같이
지극히 간단한 일이라.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
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너
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
리라. 무엇이랴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
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
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
니라.

“그러나 무엇이랴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
지니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
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

“그러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
로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으며 그릇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
희가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너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
록 하라. 만일 너희가 선한 모든 것을
좃으며 이를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분명
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모로 7 : 14—19)

이 성구와 기타 고대와 현대의 경전
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예수와 그의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게 될 모
든 정직한 영혼은 이 메시지에서 언급
되고 있는 타락한 행위는 십계명, 산
상수훈 및 현대의 계시에 어긋나는 모
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
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알고
따르며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교성 84 : 46)
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깨닫고 철
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영의 음성을 듣(고 이상하고 부
정하고 불순한 행위를 피하)는 자는 모
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교성
84 : 47)기 때문입니다. ✱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나는 어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합당한 회원이 되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행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과 교회의 각 회원이 이 사업의 거룩함을 알게 되는 방법과 마음속으로 성령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시현을 보며, 천사와 이야기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충실한 사람에게 부여했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말일의 계시를 믿는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려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며, 천사가 인간에게 성역을 베풀고, 계시와 시현이 지상에 내려지고 있으며, 고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은사 중 현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 스펜서 더블류 킴볼 등의 예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도나 예언자들을 생각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계시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이 교회 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관하여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왕국으로서, 우리가 해의 영광에 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 교회는 계시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과 여러 모임에 함께 참석하여 예언자들이 주님의 장막은 좁은 것이며,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그가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인도하고 지시하며,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고 겸손하고 뜨겁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감을 받고 있으며, 교회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미치는 한 빠른 속도로 주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의 다른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왕국의 회원인 우리도 깨끗하고 완전한 생활을 하여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가장 훌륭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합시다.

그러나 계시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예언자만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현도 총관리 역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계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주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의 영혼은 지도자의 직책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영혼과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영원한 우주 만물의 법칙을 주관하시므로 누구든지 합당하게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킴볼 대관장이 받은 것과

같은 계시를 받을 수 있으며, 요셉 스미스가 한 것과 똑같이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적인 모든 면에서 발달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읽고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읽는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참된 관계와 상대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은 다만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의식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5분 동안만 주시하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읽어서 얻게 되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19페이지)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일과 주의 마음과 뜻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연관되어 있음을 스스로 알고, 주님의 교회에 관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확인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에는 지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주로 지적인 분야에 관한 지식을 찾는데 그 지식은 대개 이성과 감각에 의하여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우리는 진보적인 생활을 하여 식견을 넓히고 발전해 나가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지성을 키워 나가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바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다룰 때 단지 추리나 감각에 의하

교회 회원은 누구나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영원한 세계의 시현을 볼 수도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을 본 예언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 얻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에 일치시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과 경로를 통해 각 개인에게 계시가 오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단지 지적인 면만을 내세워 교리나, 어떤 종류의 것이든, 교회 문제를 평가하는 것에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이성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 지적인 사실과 온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그 상대적인 장점을 놓고 비교해 보면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만 알게 됩니다.

사실상 교리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추리할 수도 있지만, 자기 영혼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마음속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신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자기 생활에 종교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회원은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읍니다. 이는 모든 교회 회원은 침례받은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로움과 충실함으로 신회의 일원인 성신과 늘 함께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교회 회원은 누구나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영원한 세계의 시현을 볼 수도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을 본 예언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이 세상의 장래 운명을 이야기하는 예언자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

기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 11 : 29)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고전 14 : 39)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심사에 관하여 예언의 은사를 간구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계시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권세에 의하여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공식을 간단히 설명한 것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성 8 : 2-3)

이 계시는 성령이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이해, 즉 지식을 전달하고 지성과 진리와 하나님의 것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로써 창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나타내시지 아니하신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는 우리 선조가 마지막 때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으로 기다린 것이니.”(교성 121 : 26-27)

이것은 실로 영화로운 성구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직접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리라.

“또 저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 주리니, 곧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미래에 이르기까지 숨겨 온 나의 왕국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려 주며, 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한 나의 뜻을 알게 하리라.

“이는 나의 영으로써 깨닫게 하며 나의 권능으로써 나의 뜻의 비밀 곧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저들에게 알려 줄 것임이니라.”(교성 76 : 5, 7, 10)

이제 나는 우리가 천사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꿈을 꾸며 시현을 볼 수 있으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관한 한 가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성 93 : 1)

예언자는 왕국의 장로인 우리가 신앙과 의로 뭉치고 영원한 세계의 시현을 볼 자질을 갖추면 지금이나 또는 어느 때든지 그에게서 장막이 걸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가 없이는 구원이 올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륜의 시

우리는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대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계시없이 성역을 베푸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누구도 예언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을 갖지 아니한 자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예언의 영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간증 때문입니다. 현세의 인산들은 하늘과 지옥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간증을 하는데, 간증없이 누구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6페이지)

우리는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응답되리라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니파이일서 15:11)

물론경에는 매우 성공적인 선교사들인 모사이야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다.

“그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앨마서 17:2-3)

한 가지 더 인용하겠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번째 알림을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깨끗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같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밝게 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6페이지)

경전에는 계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에 관한

여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5분 동안 하늘을 주시하라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대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란 개인의 생활에 성신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터를 닦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에 관한 공식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것입니다.

1. 경전을 상고함.
2. 계명을 지키.
3. 신앙으로 간구함.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주님과 일치하게 되어 그의 몸 안에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종교의 영원한 원리가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전하여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시현을 보며, 천사와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는 영적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성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분석할 때는 하나님과 뜻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이 받을 필요가 있는 첫째되는 큰 계시는 이 교회의 신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동반자로 하여 계시를 받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지식을 얻어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스스로를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이 은사를 받아 발전함으로써 예언자 요셉 스미스나 기타 어느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받은 것과 같은 영원한 모든 것에 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어느 정도의 계시를 받았읍니다. 나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려 주는 계시를 받았읍니다. 그 결과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떤 연구 조사와는 무관하게 그것을 압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에게 말해 주고, 내게 간증을 주었으므로 그것을 압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합당한 관리자로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요셉 스미스가 그의 예언자이고, 스펜서 더블류킴볼 대관장이 오늘날 예언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지상의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임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하여, 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경전을 상고하며, 계명을 지키고 신앙으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영혼으로 위대한 영광과 만족을 얻고, 높은 곳에 있는 처소에서 궁극적인 승영을 얻기에 필요한 만큼의 개인적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은 시현을 보며, 천사와 이야기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충실한 사람에게 부여되었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침례받기 위해 사십년을 기다렸습니다

베시 리퍼 요우컴

나는 18세가 되어 결혼할 때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에도 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기대한 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매주 하루씩 금식하며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원리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도록 정구적으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던 1920년 어느 날, 내게 4명의 어린 자녀가 딸려 있을 때 어떤 선교사들이 우리 집 가까이 있는 학교에 신앙 개조라는 소책자를 두고 갔는데, 한 아

이가 그 책자를 한 권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들이 그날 밤 예배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별로 흥미없어 했으므로 가지는 않았으나, 나는 그 책자를 읽고 물문경에 관하여 언급된 성경의 모든 성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후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에 편지를 써 물문경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물문경과 함께 여러 가지 책자를 보내 주었습니다. 나는 물문경을 세번째 통독하면서 그것이 참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참된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느낀 충동은 온 세상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에게 물문경을 주었으나, 그녀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았읍니다. 오히려 교회에 관하여 몇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읍니다. 그녀는 나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으며, 남편은 내가 보던 책자를 불살라 버리고, 우리 자녀를 이 교회에 참석시키는 것을 금했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것을 잃게 되어 당황한 나는 이러한 문제를 편지로 써서 교회 본부로 보냈읍니다. 내가 받은 권고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면 결국 침례받을 길이 열리게 될테니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여자에게 침례를 베풀 수 없었읍니다.

나는 계속해서 물문경과 기타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책자를 읽었는데 그중에는 교회를 편들어 쓴 것도 있고, 적대시하며 쓴 책도 있었읍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간증은 더욱 커졌읍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물문경이 타버렸고, 다시 주문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다시 집을 일으켜 세우면서 내가 제일 처음 산 물건 중에 성경이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넌 결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렇지?”라고 말씀했읍니다.

그 다음으로 이 교회에 접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 자녀가 여섯 명으로 늘어난 1940년대의 일이었읍니다. 나는 약 129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텍사스 와코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갔읍니다. 언니는 말일성도인 자기 친구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이 일로 와코에 있는 작은 지부의 주일학교와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자매 선교사가 나에게 물문경을 한 권 주었읍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있는, 딸들에게 이 복음에 관하여 말할 용기를 얻었읍니다.

또한 이때 제보 사업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활동을 통하여 한 번도 교회에 접하지 못한 그 뒤의 이십년 동안에도 간증을 지킬 수 있었읍니다. 그 동안에도 나는 죽은 친척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렸으며 이 사업을 하면서 커다란 만족을 얻었읍니다.

또한 1945년, 세계 이차 대전의 와중에서 세 명의 아들들이 안전하게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렸읍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세 아들과 열 여섯 살 된 아들 로버트 리가 아버지를 도와 이사 집을 나르던 중 로버트 리가 감전되어 생명을 잃었읍니다. 그날 밤 나는 자리에 누워 이 비극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몇 번이고 이렇게 자문했읍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된건가? 나는 우리 가족이 보호받으리라는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지금 로버트 리는 죽어 누워 있지 않은가!”

그때 어디선가에서 분명하면서도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 왔읍니다. “로버트 리는 안전하게 잘 있단다.” 그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참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간증은 다시 강해졌읍니다.

1963년, 남편은 건강이 나빠져서 2년

신앙과 기도와 진지한 복음 연구는
언제나 생생한 간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안 병원을 출입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다시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왜 물몬경을 읽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알아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알고 싶은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 준 것을 알고 있을 따름이에요. 성경이 동방 세계에 관한 기록인 것과 마찬가지로 물몬경은 서방 세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대륙의 백성들이 사악함으로 큰 재난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어요.”

결국 그는 “글쎄, 이 두 책 사이에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군.”하고 말했으나, 조금도 물몬경을 읽지 않았으며,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던 중 그의 병이 재발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새벽 5시경에 조금 회복되어서 내 손을 잡고는 “내 침대 끝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이오?”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마 그가 영의 세계에서 그를 찾으려온 헤어진 가족과 친구들을 보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죽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내가 죽을 모양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복음에 관해서 배울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마침내 그가 회복된 복음에 관하여 듣게 되리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죽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일년 후에는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서 남편에게 인봉되었으며, 아들 로버트 리를 우리에게 인봉했습니다. 살아 있는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이 내가 회복된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기 전에 이미 다른 교회에 들어갔읍니다.

1965년, 침례받을 당시 나는 69세였으며, 이것은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은 지 약 사십년이 지난 후였으나 그동안 그 간증은 결코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신앙과 기도와 진지한 복음 연구는 언제나 생생한 간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참된 복음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이며 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힘있게 간증드립니다. *

지방 대학 교수인 데이빗은 아내가 죽을 때 병원에 함께 있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병을 앓았던 터라, 그녀의 죽음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겼으나 어린 일곱 자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 병원은 집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데이빗은 이전의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그 소식을 가족에게 전해 주도록 부탁했다. 그 가족 같은 친구는 복음을 안내자로 삼아 아이들에게 조용하고 분명하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으며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뜻하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그 뒤 며칠 동안 그들의 불

안한 마음을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굳은 신앙으로 평온하게 받아들여 주었으므로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이 살아 있으며, 결국 육체와 다시 결합될리라는 것을 알고 어머니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다시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과 그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분명히 그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이 실화와 비슷한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가족들에게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자녀에게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함

존 엠 테일러



때 우리가 복음이 주는 희망에 대하여 보다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은 그럴 경우에 놀라운 축복이 된다.

내가 중서부의 도시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열 세 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만났다. 그 자녀들은 성장해서 집에 함께 살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매우 친근하고 사랑에 찬 가족이었다. 살아 있는 열 두 자녀 중에 열 명은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부터 두 구역 이내에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 잠긴 자녀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슬픔에 가득 차 있던 그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듣더니, 결국은 주님께 감사를 표하게 되었다.

게시된 진리는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준다. 가까운 가족을 잃게 되면 누구나 슬픔을 느끼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나는 내 아내가 아직 학교에 갈 연령도 되지 못한 두 아이를 남겨 두고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지침을 간구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1. 자녀들은 쉬운 말로 전세와 영의 세계와 부활에 관한 개념을 배워야 한다. 그들에게 신전 인봉을 상기시켜 주자, 결국에는 가족이 다시 결합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교회 역사와 개인 및 가족 기록에서 신앙을 증진시켜 주는 이야기는 그들이 다시 어머니와 만나게 되리라는 신앙을 굳게 해주었다.

2.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는 살아 있

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린이들의 견해를 그릇되게 하는 설명이나 필요없는 근심 걱정을 야기시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만일 한 자녀가 어느 자매에게서 “엄마는 너무 착하고 사람이 좋아 하나님께서 저 세상으로 불러 가신 거야.”라고 말해 주는 것을 듣는다면, 그 아이는 살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일 조부모님이 임종한 것을 “잠드신 것”이라고 말해 주면 그 말을 들은 어린이는 잠자는 것을 무서워할 수도 있다.

3. 나는 성인의 침착성이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가 죽음을 불가피하지만 종말이 아닌 것으로 대하면 어린이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너무 큰 슬픔에 휩싸여서 즉시 어린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부모는 가족 중의 다른 사람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다시 냉정을 찾을 때까지 아이들에게 대신 이야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슬픔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어떤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서 아이들의 숙모에게 자기 딸들에게 대신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했다. 집에 질려 있던 두 소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들은 숙모가 굉장한 극기심을 발휘하여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자 숙모 곁을 떠나려고 하였다. 결국 숙모가 울기 시작하자 그 소녀들은 숙모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 그렇게 되어 슬픔을 크게 덜게 되었다.

부모가 자연스럽고 감정을 표시하고 함께 감정을 나누면 아이들은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4.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참을성있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어린이가 울고 싶어하면 울게 내버려 둔다.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스스로 그 짐을 벗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부모 중의 한 사람을 여의게 된 자녀는 부모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버려 두고 떠나진 않을까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한다. 단순하고 솔직하게 확신시켜 주면 그 자녀는 만족하게 된다.

5. 나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 중의 표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지한 음성이라든가, 포근하게 감싸 주는 등의 따뜻한 태도는 더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게 한다.

6. 어린이들은 그런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 즉 수영, 캠핑, 스포츠 등의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 접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족이 사랑하는 애완 동물 같은 것도 큰 위안이 되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안전한 출구가 될 수 있다.

7. 이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마음에서 그가 간직하고 있는 훌륭한 추억까지 지워버리게 해서는 안된다. 자녀는 가족 사진을 보거나 질문하면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감사와 이해심을 더욱 키우게 된다.

8. 어린이의 걱정이나 죄의식이나 무관심 등이 오래 지속되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담은 그 개념을 복음에 의하여 설명

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누군가가 사망한 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가까운 사람의 임종을 앞에 둔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방법도 된다. 가정의 밤 시간에 친구나 먼 친척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관하여 폭넓게 토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좀 큰 자녀들은 장례식에 참석함으로써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대개 7세 이하)은 장례식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동물의 죽음도 교훈이 될 수 있다. 한 번은 내 아들 조나단이 죽은 뱀을 집에 갖고 온 적이 있었다. 그는 끊어진 뱀의 꼬리에 붕대를 감아 주어 다시 소생시키고자 했다. 그에게 한참 동안 설득시킨 뒤에야 뱀이 일단 죽으면 아무리 많은 붕대를 감아 주어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었다.

일단 어린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큰 신앙과 활기를 보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 아내가 죽고 난 뒤에 훌륭한 어린 딸 셀린드는 “주부”가 되었다. 세일즈맨이나 기타 어머니를 찾아온 사람들은 “엄마는 여기에 없어요. 천국에 계시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사실적인 태도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놀라게 했다.

사망에 적응해 나가는 어린이의 능력을 살펴보는 것도 위안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껴야 하며 정서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전한 토대, 즉 회복과 영생에 대한 희망을 배풀어 준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 토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우리 가정에서는 월요일 저녁에 갖는 가정의 밤을 상당히 훌륭하게 해 나가고 있다. 보통 가정의 밤 교재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의 밤 시간이나 기타 학습 시간에 토론을 훌륭하게 시작해 나가기 어렵들 때도 많다.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재미있게 즐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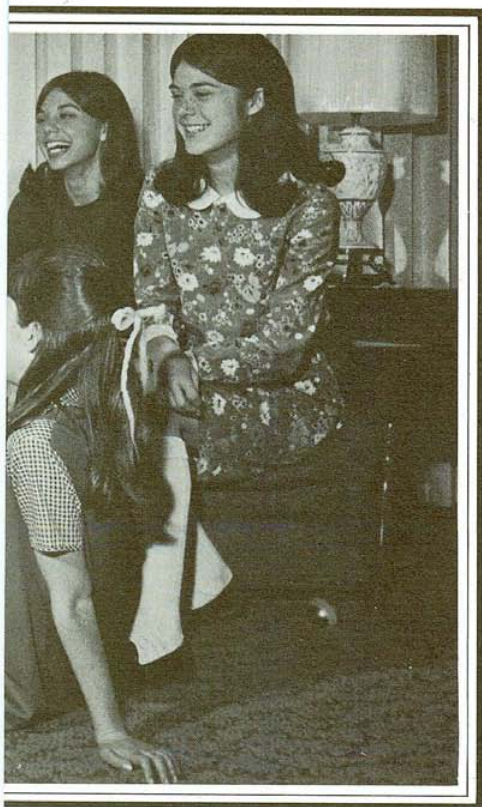
하여 토론하려고 하면 갑자기 모두 주저하게 된답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겠는가?

조정된 집회 순서의 유익한 점의 하나는 주일에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각 가정에서는 월요일 밤에 갖는 정규 가정의 밤 이외에도 이 여분의 시간에 함께 복음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 밤 교재에는 이런 토론 시간에 활용하기에 충분한 공과가 들어 있지 않은데 각 가정에서는 어디에서 그러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 경전을 기본적인 자료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교회 잡지도 훌륭한 토론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도의 빛에 있는 많은 기사를 손쉽게 토론 자료로 채택할 수 있다. 즉 대관장단 메시지, 대회 말씀 및 근래의 연설, 결혼, 가정, 각 개인의 필요 사항, 현재의 교회 교과 과정, 복음이 어떻게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가, 현대 성도들의 영감을 주는 경험 등에 관한 기사를 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가족 단위로 한 기사를 읽은 다음에, 그에 관하여 토론하고 질문을 던져 본다. 좀 나이가 든 자녀에게는 “예” “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나 그 기사에 나타나 있는 사실에 대한 질문은 피하고 생각하고 분석해 보아야 할 질문을 한다. 토론 시간은 가족이 마음을 열고 구체적인 목표나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새로운 지식과 의견을 전하고 찾으며, 질문하고,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안하여 공통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토론을 인도함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토론을 인도하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가족 토론을 인도하고자 할 때 다음의 아홉 가지 지침(1973년 6월 대회를 위하여 델기세텍 신권 상향회에서 준비한 토론 인도 방법: 토론 지도자를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에서 발췌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끌 분위기를 조성해 힘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제안하고, 함께 나누며, 웃음 거리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며, 개인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족이 모두 인식하게 한다. 개회 찬송과 기도 및 안락한 좌석(가능하면 둥글게)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 이야기할 것이 있을 때 손을 들거나 차례로 하기를 너무 고집하지 않도록 한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없이는 분위기를 유지한다.

2. 창의적으로 시작한다. 경전이나 성도의 벗에 있는 기사나 말씀에 관하여 토론한다면, 그 자료를 다 함께 소리내어 읽거나 가족 각자가 먼저 개인적으로 읽도록 지명할 수 있다.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즉 유추, 이야기, 재미있는 질문, 기사에 나와 있는 예, 게임, 퀴즈 및 와드 집회소 도서관에 있는 자료(필름, 테이프, 지도, 그림 등)를 이용한다.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은 반드시 바로 토론 주제로 이끌고, 가족이 그 토론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다. 소개말에 시간을 다 빼앗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3. 토론하고자 하는 기사를 읽거나 검토한 후에는 그 자료를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본다. 예를 들면, 그 기사에 있는 중심 인물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그는 그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었나? 그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였나?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인가?

또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상황에 관하여 토론할 수도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나? 어떤 다른 해결책을 취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도록 또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나?

또는 그 기사에 대한 자기 가족의 반응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이 기사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 이 일은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기사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

또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개념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다. 이 저자가 신앙에 대하여 설명한 것에 동의하는가?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었나?

여러분은 토론 지도자로서 모든 질문을 다할 필요는 없다. 다른 가족이 질문하게 한다. 그들이 그 기사나 토론에 관한 느낌을 발표하도록 격려한다.

4. 토론을 한 가지 주제에 집중시킨다. 여러분은 가족이 주제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친절하지만 확고한 태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가

족들이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말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토론을 진전시켜 나간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주제에 접근하게 한다.

5. 무슨 말이든지 주의깊게 들어준다. 무슨 말이든지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가족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더 자기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게 될 것이다.

6.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한두 사람이 토론을 독점하지 않게 한다.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거나 개성이 강해서 주눅이 들어 말을 못하는 사람의 감정과 느낌에 유의하고 그들에게도 자기 견해를 발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할 기회를 준다. 적절한 때를 잡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7. 여러분 자신이 너무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모든 의견에 대하여 주석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질문을 다시 가족에게 던지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이나 해결책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토론 지도자가 그 그룹의 일원일 경우, 자연히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8. 끝날 때 그 토론 내용을 요약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요약하게 한다. 토론 중에 나온 이야기를 모두 다 되풀이하지는 않는다. 가족들에게 그 요약한 것에 그들의 생각이 잘 반영되었는지 물어본다.

9. 그 토론을 평가한다.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였는지 또한 다음 토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스스로 자문하거나 가족에게 묻는다.

토론에 참여할

참여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들어 보기로 하자.

(1)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는 책임을 받아들인다.

(2)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한 질문을 한다. 자기가 잘못 알아들은 것은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3) 이야기 도중에 생기는 침묵의 시간을 모두 채우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다.

(4) 자신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다.

(5) 자신의 의견을 토론 지도자나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가족 모두에게 발표한다.

(6) 너무 긴 의견을 발표하여 시간을 모두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기 의견과 다를지라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논쟁을 피하고 조용히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주의깊고, 친절하게, 우호적으로 해야 한다.

(8) 토론이 끝날 때는 가족이 합당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도와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토론의 목적인 한 가족으로서 더 가까워지고, 복음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고, 신앙과 서약을 더 굳게 하고, 가족이 대화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든 가족이 기억하는 것이다. *

에델

수전 에이치 에일워드

나는 대학생 시절에 얼마 동안 유타주의 아메리칸 포크에서 정신 박약아를 위한 주립 훈련 학교의 뮤추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한 것에 비하면 훨씬 더 강한 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뇌성 소아마비 환자인 에델은 예외였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또는 그녀의 주변에서 일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나의 동정심과 감정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손과 발이 금속제 틀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훌륭한 지력을 갖고 있으며, 주 직원들이 그녀에게 지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40년이 걸렸고, 그 지력은 그렇게 심하게 불구가 된 육신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곳의 직원은 마침내 그녀에게 말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주님께서 그녀를 이 지상에 두시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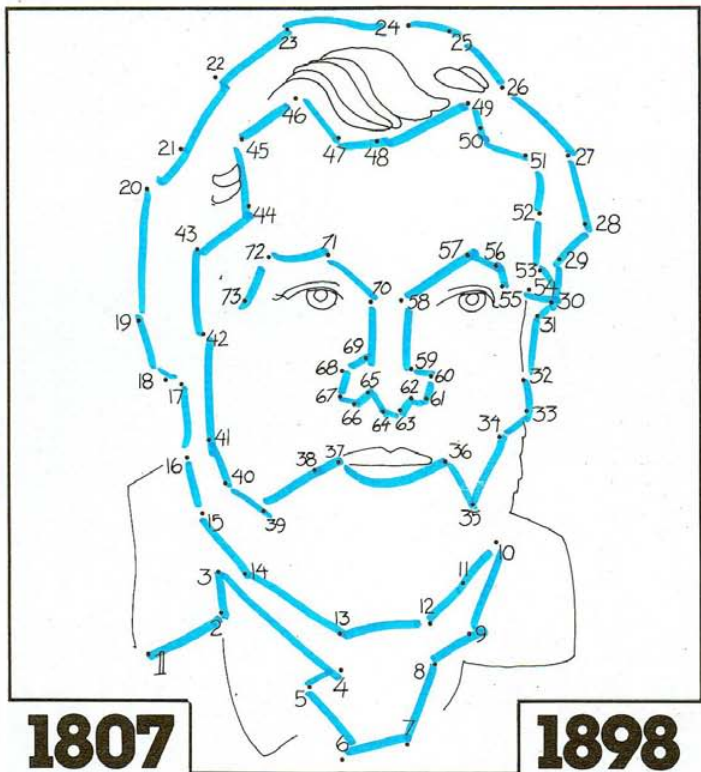
어느 날 나는 그 학교에 있는 금식 간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려 할 때 에델이 말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그녀에게 시간을 내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델은 나가지도 이해할 수 있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인생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에델이 간증을 마치자 그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된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언제나 에델과 그녀가 가르쳐 준 훌륭한 교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미 포 예



미 포 예

1807

1898

제 4대 교회 대관장인 윌포드 우드럽의 생애는 구사일생적인 죽음에서의 탈출과 역경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는 3세 때 물이 끓고 있는 큰 솥에 빠진 일이 있으며, 몇 년 뒤에는 아버지의 가축을 먹이다가 돌진하는 황소에게 들이 받혀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넘어지는 나무에 깔리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는 이 외에도 많은 사고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살아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때문이라고 했다.

한 번은 미합중국의 알칸소와 테네시로 선교 사업을 떠나던 동안에 동반자와 함께 동틀녘부터 밤 열시까지 “음식도 한 숟가락 먹지 못하고” 95킬로미터나 걸은 적이 있었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우드럽 장로의 신앙과 수고로 인하여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았다. 그 중에 수백 명은 용감한 지도자이며 종인 이 장로로부터 직접 침례받았다.

그는 1889년에 82세의 나이로 교회 대관장이 되었으며 9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관장으로 봉사하였다. *

어느 무더운 여름 날 우리 가족은 그날 오후를 가장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산으로 가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가족이 가까운 동굴에 함께 가 보기로 계획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등산 장비를 챙기고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여행길에 오른 우리는 이내 상쾌하고 시원한 산속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굴에서 공원 경비원을 만났으며, 그가 우리를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는 본래는 세 개의 동굴이 있어서 입구가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을 인위적으로 통로를 파서 현재는 그 동굴들이 한데 연결되었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현상의 바위 층이 수없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았는

데 그 중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오솔길 옆에 있는 조그만 틈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서 있는 길 밑에는 아직 파내려 가지 않은 동굴이 두 개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이 두 동굴도 모두 개발되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는 그 낮은 동굴에 드나들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지 못했노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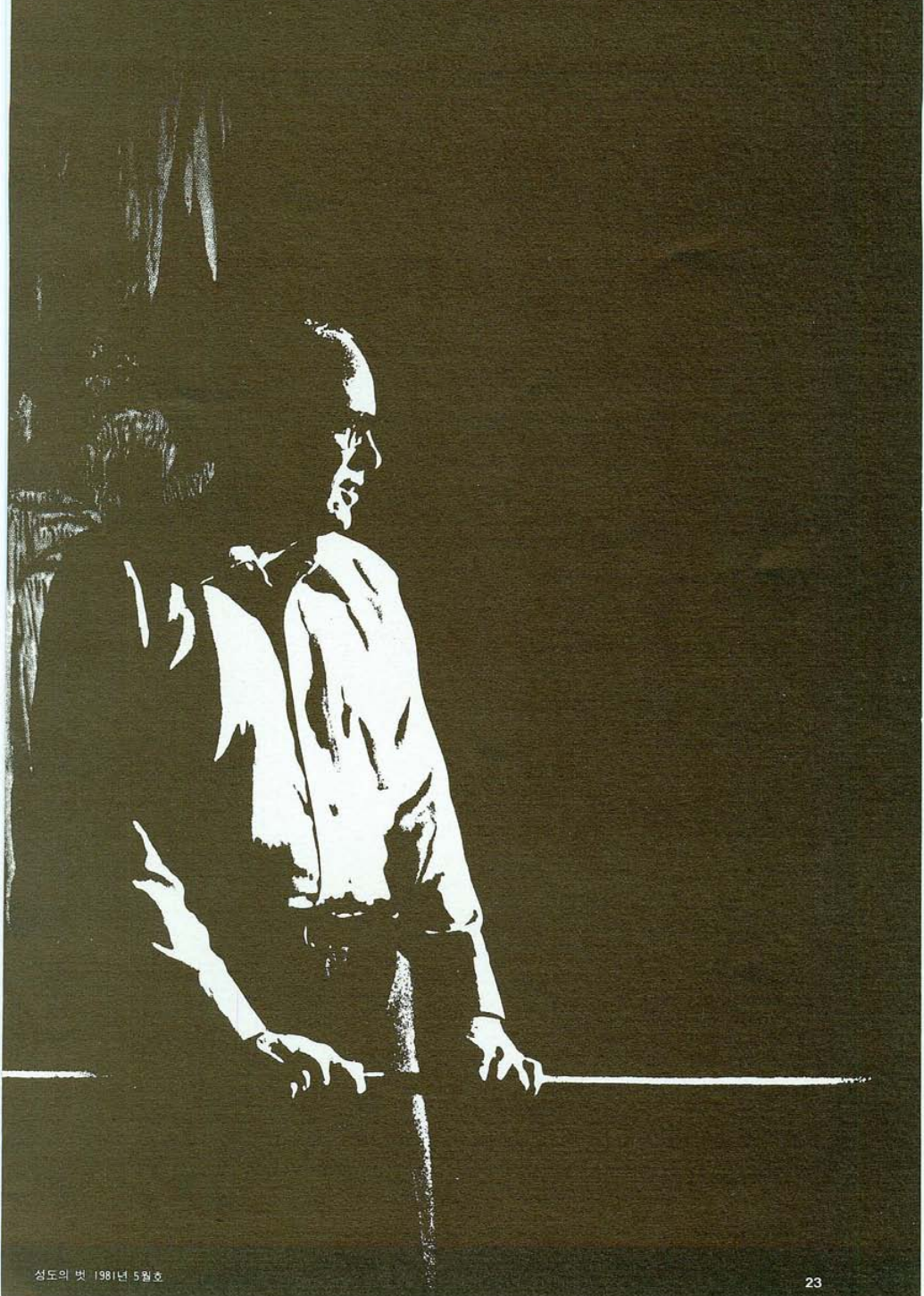
우리는 끝이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인 채 사방으로 뚫려 있어 종잡을 수 없는 좁고 가파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균형을 잡기 위하여 동굴의 갈 벽에 설치해 놓은 쇠막대를 잡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고 일행의 뒤에 좀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동

잡으라 강한 막대기



에프 버트 하워드
칠십인 재일 정원회



굴 안의 전기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일행에게 시범을 보이려 한 것인지, 갑자기 정전이 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 안내인이 큰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좁은 통로를 따라 메아리쳐 들려 왔습니다. “모두 조용히 계십시오. 곧 전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길에 가만히 서서 쇠막대를 꼭 잡아 주십시오.” 그의 회중진동은 멀리서 희미하게 노란색을 발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뾰족한 함정과 옆의 통로가 끊어져서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속에서 길을 잃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좁아짐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경사진 바위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벽을 더듬어 쇠막대를 찾아냈습니다. 나는 공원 경비원이 앞에서 있고, 이 쇠막대를 꼭 잡고 있는다면, 전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틀림없이 이곳에서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가던 일행이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으나, 곧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통로에 머물러서 이 길에 익숙해 있는 경비원의 조언을 따르기만 하면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동굴의 바위 벽에 튼튼하게 부착되어 있는 쇠막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읍니다.

몇 분 후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으므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며 신비스럽게 아름다운 동굴의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길을 벗어나거나 쇠막대를 놓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흑 속에서 동굴의 바닥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나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쇠막대나 안내인이 없었다면 우리들 중에서 동굴을 무사히 빠져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 행로가 캄캄하게 막힐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 우리가 낙담과 슬픔과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내자인 구세주도 이런 암흑 속을 거쳐 나왔으므로, 우리는 전혀 그 암흑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우리가 빠져 나올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쇠막대, 즉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은 단지 동굴에서 빠져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가족은 즐겁고 훌륭한 추억을 안겨 준 소풍을 많이 갔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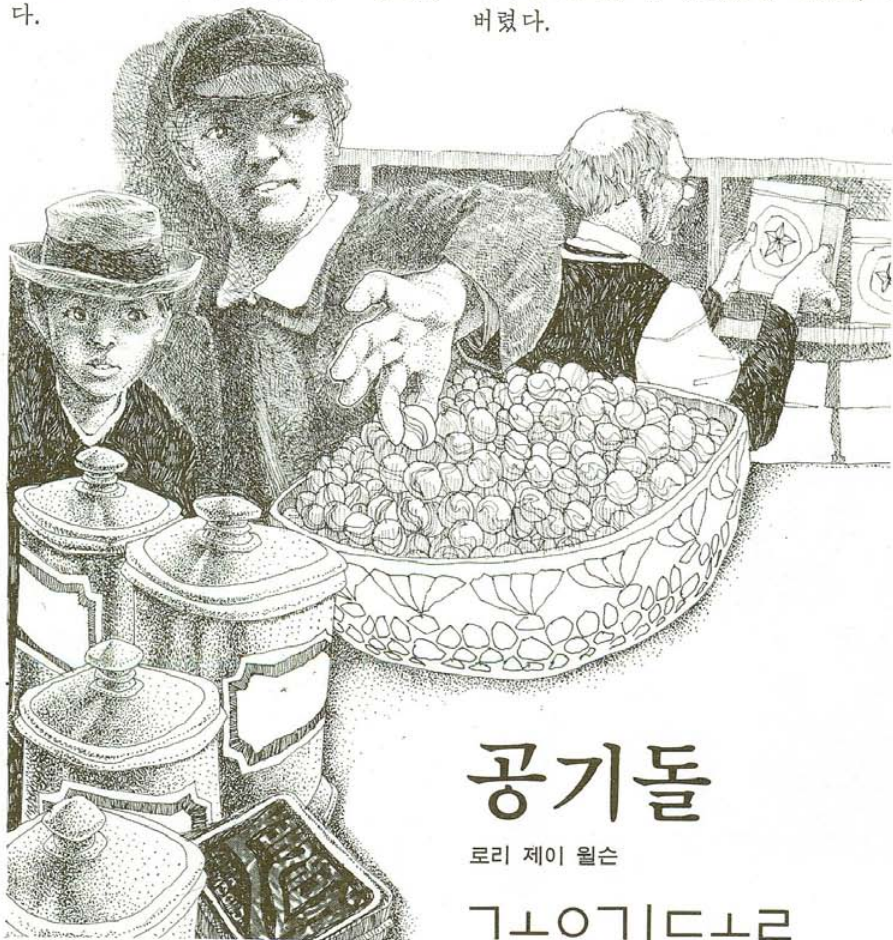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랑과 이해와 협동의 교환을 배웠읍니다. 그러나 그 옛날 캄캄한 동굴에서 축복한 쇠막대를 단단히 잡고 있었을 때 배운 신앙의 교환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

“공기놀이에서 조니 케이프를 이기고 말겠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문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나는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드디어 공기놀이 시합일이 닥친 것이다. 벌써 몇 주전부터 공기놀이 시합을 계획해 왔으므로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는 시간이 지루할 정도로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마침내 수업이 끝나, 우리 반은 밖에 모였다. 나는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나는 처음으로 조니의 새로운 공기들을 보았다.

“제리야, 이 공기들 멋있지!” 하고 그는 몇 번씩이나 말했다.

나는 조니의 것 만큼 새 공기들을 갖고 있지 못했으므로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나 나는 나도 그런 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조니가 눈치 채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드디어 시합이 시작되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십오분쯤 지나자 조니가 내 공기들을 모조리 따버렸다.



공기돌

로리 제이 윌슨

그노이디그

나는 너무 화가 치밀어 그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서 동생 새미를 못살게 굴었다. 나는 공기 놀이에서 조니에게,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굴욕감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험 때문에 집에 늦게 오게 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늦어지자 어머니도 나에게 화를 내셨다.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털실을 사야 했으나, 솜은 어려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었으므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돈을 주시면서 빨리 갔다 오라고 했다. 솜은 나하고 함께 가고 싶어했으나 나는 빨리 갔다 와야 하니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솜이 울면서 베를 쓰자, 어머니는 내게 솜도 데리고 가라

고 했다. 나는 시장까지 줄곧 솜을 잃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빨리 달렸다. 그는 내가 털실을 살 때에야 상점에 들어섰다. 나는 솜의 그 서운해 하는 시신을 슬쩍 피했다. 우리가 카운터에 가서 돈을 내려는 데 우리 워드 회원인 빌링스씨가 우리를 도와 주었다. 그때 나는 조니가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공기돌이 가득 들어 있는 상자를 보았다. 내 손바닥에는 축축히 땀이 났으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잃은 공기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공기돌 중에서 하나를 가져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그 많은 공기돌 중에서 하나가 없어져도 빌링스씨는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주위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빌링스씨는 등을 우리 쪽으로 돌리고 상점에 있는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에서 자주색 공기돌 한 개를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 공기돌은 감촉이 차고 매끄러웠다. 나는 옆눈으로 새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입을 열다가 곧 외면해 버렸다.

곧 빌링스씨가 카운터로 돌아왔다. “게리야, 오늘 뭐 더 사고 싶은 것이 있니?”

나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아니예요. 어머니가 필요한 것은 다 샀어요.”

빌링스씨가 갑자기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으므로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공기돌은 어떻게 되었지? 잃은 것은 아니겠지?”하고 겨우 들릴락말락하게 조용히 말했다.

그러자, 내 호주머니 속에 있던 그



매끄럽고 차거운 공기돌이 갑자기 뜨거운 불같이 느껴졌다. 나는 겁에 질려 이렇게 생각했다.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내가 집는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 나는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청하게 서 있다가 공기돌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올려 놓았다. 그러자 새미가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빌링스씨, 그 공기돌은 아저씨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형 것이에요. 형이 그것을 갖고 노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형이……”

나는 그를 보면서 말했다. “조용히 해! 새미, 그러면 더 불리하게 될 뿐이야.” 빌링스씨는 내가 무엇인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제가 있었어요.”라고 떠들거리며 말했다.

빌링스씨는 공기돌의 값을 적어 놓은 표지를 가리켰다.

“지금 당장은 그 값을 치를 돈이 없어요.”하고 내가 말하자, 그는 그 공기돌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나는 털실 값을 치르고 자루를 집어들고 돌아섰다. 그러나 문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빌링스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한 짓을 우리 부모님께 말씀하시겠어요?”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의 불안감은 안도와 불신감으로 바뀌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자 그가 말을 가로챈다. “게리야, 나는 네가 스스로 말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이야.”

나는 내 귀를 의심하였다. “내가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지만……”

“게리야, 네 아버지는 이곳에서 6년 동안 감독으로 봉사하셨어. 그렇지 않니?” 나는 “예”라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를 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니?” 내가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게리야,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은 거야.”

새미는 내 손을 잡아당기면서 나를 문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형이 말하겠지?”

“형이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님이 아실 리가 없어.” 그 나이 많은 상점 주인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네가 말하기를 바란다.”

갑자기 나는 다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나 내가 한 일을 말씀드려야 하는 처지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형은 참 운이 좋아.”하면서 씬이 떠들었다. “형이 한 일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정말로 화내실거야. 하지만 결코 아실 수가 없지. 난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해.”하고 내가 주의를 주자, 씬은 나의 찡그린 얼굴을 보고 잠잠해졌다. 물론 동생의 말은 옳았다. 아빠는 화를 내실 것이다. 아버지도 우리에게 감독의 가족은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해 왔으며, 자신의 아들들이 올바른 일을 하기를 바라시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빌링스씨가 신임에 관해 말한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았다. 우리가 현관의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새미가 내 팔을 잡았다. “아빠에게 이야기할 거야?” 그는 걱정스럽게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질문을 못들은 체 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방안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다. 우리가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우리를 잠시 쳐다보았으나 곧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왜 이야기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새미가 머리 속에 떠오르는 바람에 이런 생각이 뚝 끊겼다. 그는 방한가운데 서서 마치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성탄절 선물 꾸러미를 볼 때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나의 이 어린 동생이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상점에서 나를 두둔해 주려고 기꺼이 거짓말을 해주었는데도 나는 고작 그에게 야비하게 대해 주는 것으로 보답했던 것이다. 나는 요즈음 그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 주었는가?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비참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서 아버지의 시선을 계속 느꼈으나, 감히 그를 쳐다볼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다 고백한 뒤에도 한참 동안 조용히 계셨으므로 나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마침내 아버지는 “자, 날 보아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무섭지 않고 친절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놀랐다. 아버지의 눈은 약간 젖어 있는 것 같았으나, 얼굴에는 미소를 띄고 계셨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했다. “내 아들이,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네가 나에게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게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네 행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내가 벌을 받아야 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아마 너는 당분간 빌링스씨를 위하여 일해 주어야 할 게다.”

나는 내가 아버지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이렇게 하여 당분간은 수업이 끝나면 빌링스씨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것이 기뻐다. 물론 이렇게 하며 당분간은 더 이상 공기 놀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관없었다. 나는 다시 조니와 시합을 하면 나의 오래된 공기들을 사용하여 내가 잃은 공기들을 모두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내 아들이,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네가 나에게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게다.”

1,450킬로미터의 대평원을 맨발로

헬 나이트

처치 뉴스 편집자

매년 전세계에 퍼져 있는 물몬들은 그들이 물려받은 특별한 유산의 한 부분, 즉 1847년부터 1869년 사이에 철도가 놓인 대평원을 건너서 유타로 온 개척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 기간에 약 7만 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험난한 황야에 도전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 또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의 왕국에서 세상적인 왕국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려는 소망을 품고, 한테 모이기 위해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나라에서 포장 마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모여 들었다.

그 힘들고 고생스런 여행 길에 올랐던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이야기 거리를 간직하게 되었다. 그 경험은 공통된 것이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과 사람과 여행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저마다 다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유명한 교회 역사가가 된 비에이치 로버츠 장로도 그 황량한 대평원을 도보로 횡단한 사람이었다. 당시 10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16세밖에 안된 누나 폴리와 함께 먼 도보 여행을 했다. 그들은 개척자들의 출발 장소가 된 철도 종점인 아이오와주의 카운슬 블러프스 근처의 네브라스카를 출발한 375명의 무리와 합류했다. 출발 날짜는 1866년 7월 13일이었다. 그들을 4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행은 약 2개월이 걸리게 되어 있었다. 마차마다 짐을 가득 실어야 했으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일행은 모두 1,600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다. 한 사람은 여행 중에 병에 걸려 죽었다. 인디언들과의 마찰도 있었으며, 대부분 그 긴 여행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힘든 일과 피로와 추위와 굶주림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로버츠는 대평원을 횡단하는 것을 고난이나 힘든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성도들을 시험하고 순화시키는 정돈된 노고로 여겼다. 그것은 단지 황야에서 생존해 나가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 여행이었다.

그는 여행할 때의 자신의 모습을 들창코에 앞니에 틈이 벌어지고 짧게 깎은 쥐색 머리카락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건장한 소년으로 묘사했다.

그는 호기심이 많은 장난꾸러기 소년이었으며 여행 도중에 규칙을 어겨 문제를 일으키는 때도 종종 있었다.

그는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450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야 했다. 그는 그 후에도 여러 해 동안 발바닥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을 겪었으며 이것은 여행의 모든 경험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으며 그 아픈 발과 매섭게 추운 밤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인디언들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마차 행렬에 바짝 붙어 다녀야 한다고 거듭 경고받았다. 성인들은 어린이들의 실종과 고문 또는 몸값 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만으로는 당시에 “해리”로 알려진 어린 비 에이치 로버츠를 압전히 있게 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그는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함께 플랫강 근처의 덤불에서 산딸기를 따는데 열중하다가 마지막 마차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즉시 그곳을 떠났으나, 모자에 가득 담은 딸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뛰지는 않았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에 말을 타고 있는 세 명의 인디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엄청난 공포를 느꼈으나, 조용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인디언을 보면서 빨리 움직였다.

어린 해리가 말탄 인디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인디언이 “날카롭고 야성적인 고품을 질렀다.” 소년들은 다리야 날 살려라 하면서 모자며 딸기를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그들은 힘껏 뛰면서 딱 한번 뒤돌아 보았다. 인디언들은 말에 기대서서 큰소리로 웃어대고 있었다.

해리는 그 이후 며칠 동안은 캠프 규칙을 지켰으나 불행히도 이러한 새로운 순종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어느 날 어린 해리는 강을 건너는 계획에 흥분하여 새벽에 몰래 캠프에서 빠져 나왔다. 그는 강이 1.5 내지 3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강을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었기 때문에 정오까지도 거기에 도착하지 못했다. 발에 물집이 생긴 그는 숲에서 쉬다가 잠들어 버렸다. 그는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마차 대열이 바로 옆을 지나갈 때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마차가 강을 건너고 강 저쪽의 숲속으로 사라질 무렵에 해리는 잠에서 깨어나 고향을 지르고 손을 흔들며 강둑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강을 수영해서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외투와 신을 벗어 던지고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강의 약 4분의 3을 헤엄쳐 갔을 때 힘이 다 빠져 버려 대장이 말을 타고 강으로 뛰어 들어서 건져 주었다. 강둑에 오른 그는 채찍으로 한 대 맞았으나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나는 그런 참혹한 상태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누나 폴리는 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다. 어쨌든 외투와 신을 잃은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는 밤마다 외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낮이 되면 구두 생각이 간절했다.



밤이 되면 해리와 그 밖의 남자들은 마차 밑이나 가까운 맨 땅에서 잤다. 늦은 여름이었지만 밤 공기는 몹시 찼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마차에서 자는 폴리는 어두워진 후에 자기 페티코우트를 해리에게 주었으나 축축하고 좁고 딱딱한 땅에 누우면 그것도 별로 편안감을 주지 못했다. 해리는 밤낮으로 입는 옷 말고는 달리 침구가 없었다.

한번은 와이오밍에서 “들소 똥”을 모아서 불을 지피고는 불뿔 가까이에 누워 잤다. 그날 밤은 모처럼 몇 주만에 가장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었으나, 새벽녘에 눈을 떠보니 자신이 4센티미터나 되는 눈에 덮여 있었다. 해리는 신발이 없어졌으므로 1,450킬로미터를 맨발로 걸어야 했다. 발은 갈라지고 햇빛과 먼지에 의하여 새까맣게 되었다. 절룩거리며 걷는 그의 발꿈치의 갈라진 틈으로 피가 새어 나왔다. 당시에는 선인장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었으므로 그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하여 그것을 따러 다녔다. 그것을 딸 때면 날카로운 가시에 아픈 발이 찢리곤 했다. 매일 밤 폴리가 그 가시를 뺄 때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그는 아파서 울었고 누나는 동생이 불쌍해서 울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그의 아픈 발에는 가시가 박혔다.

해리는 발이 아파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자 몰래 말이나 마차를 훔쳐 타려고 했다. 그러나 붙들리면 채찍으로 맞았으나 대장이 “이 불쌍한 꼬마”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긴 여행 동안에 종종 풀리로 하여금 해리의 옷을 빼는 것을 허용해 주었으며 해리는 그 옷이 마를 동안에 몸을 가려야 했으므로 허락을 얻고 마차를 탈 수 있었다.

그는 강을 건널 때 십대의 한 소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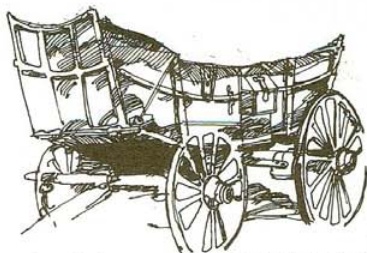
편하게 강을 건너려고 살짝 마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마차가 모래톱에 좌초했기 때문에 두 젊은이는 그 안에 갇힌 채 밤새 그곳에 남아 있었다. 해리는 밤 사이에 가장 소중한 재산인 칼날이 네 개 달린 휴대용 칼을 잃어버렸다. 그 칼은 어머니에게 선사하려고 영국에서 산 것이었다. 그 칼은 “영원히” 플래트 강물로 빠져 버렸다. 폴리는 어린 동생이 사라져 버렸으므로 몹시 당황하여 또다시 괴로운 밤을 보냈다.

화물 마차의 설탕 포대가 강을 건너다가 불에 젖어서 마차 바닥의 틈새로 설탕물이 푹푹 떨어졌다. 해리와 다른 어린이들이 그 마차 밑에 누워서 그 설탕물을 빨아먹고 손가락으로 찍어내곤 했다. 불행히도 설탕물은 입뿐만 아니라 사쓰와 바지에도 떨어졌다.

한번은 밤에 행군하게 되어 있었는데 해리는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마차 안에 숨기로 했다. 그는 빈 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내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맨발이 약 10센티 정도되는 끈끈한 당밀에 빠져들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작은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당밀 속에서 자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당밀을 푹푹 떨어뜨리면서 마차에서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그를 맞이하였다. 그 시럽을 떼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옷에 먼지가 앉고 그것이 말라 붙어서 불편한 느낌이 좀 줄어들 때까지 그냥 입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올 때 이가 움았기 때문에 머리를 뽀뽀 깎았다. 와이오밍에서 인디언 캠프 근처에 멈추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보는 인디언이 화해의 담배를 피우는 예식을 보았다. 그러나 그 자신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인디언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릿가죽이 아니군.”하고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는 깜짝 놀라서 도망쳤다.

일행이 협곡에서 나와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접어들자 산기슭의 언덕에서 야영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트자 그들은 차례대로 출발했으나 해리는 퍼레이드의 군악대장처럼 맨 앞에 있어야 했다. 폴리는 자신의 남루한 옷과 햇볕에 탄 얼굴과 머리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대열의 마지막 마차를 보러 나올 때 다른 곳으로 숨어버렸다. 그곳에는 그들을 만나러 온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리는 낮익은 여인을 발견했다. 그는 “아, 어머니!”라고 외치며 그 여인의 옷을 확 잡아당겼다.

그 여인은 해리를 내려다 보고는 “네가 해리냐? 폴리는 어디 있니?”라고 급히 물었다.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 얼싸안았으며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소를 짓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몹시 행복하게 보였다.”고 해리는 회상했다.

(각주)

로버츠가 대평원을 횡단한 것을 회상한 이 이야기는 트루먼 지 매드슨이 쓰고 북크래프트사가 발행한 “신앙의 수호자 비 에이치 로버츠 이야기”에서 발췌한 것이다. 승인을 받아 사용했음. *

공책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재닛 브리감

나는 맨 처음 공책을 몇 년 전에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약방에서 77센트를 주고 샀다. 그것은 참으로 불품없이 제본된 공책이다. 당시만 해도 나는 개인 일지를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단지 내 생각을 조직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따름이다.

그 이전에는 내 생각을 아무 데나 펼리한 종이 조각, 예를 들면, 현금 명세서의 뒷면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달력의 조그마한 여백 등에 적어 두었다. 나는 그런 종이 조각을 잃어버리면 훌륭하게 떠오른 생각을 적은 기록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것을 더 오래 보존할 시간이 된 것이다.

나는 글쓰기를 배운 뒤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일기를 썼으나 손바닥만한 작은 페이지에는 긴 문장을 쓸 수 없었다. 또한 필장에 일기장이라고 쓴 단어는 탐험가가 보관할 남극 탐험에 관한 기록만큼이나 고상하게 보였다. 나는 그 속에 일상 생활의 행동만 적었을 뿐 내 생각은 한번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문체는 이러한 것이다. “오늘 나는 하마터면 역사 시험에 낙제할 뻔했으나, 저녁 때 우리 불어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마이크가 찾아왔다.”)

그런 내용에는 정서적인 것은 전혀 없었으나, 어쨌든 그런 내용이 들어 있

었다. 유감스럽게도 대학에 다닐 때는 “너무 바빠” 일기를 계속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77센트짜리 공책을 살 때만 해도 “일기”나 “개인 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훌륭한 주일학교 말씀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생각을 잊어버려 지쳤을 따름이다. 그 첫번째 공책에 적으면서 나는 너무나 쉽게 말이 나오는데 놀랐다. 나는 어느 새 공책에 기록하는 밤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때로는 그날 밤에 기록해야 할 것으로 떠오른 생각을 낮에 써넣기도 했다. 때로는 새벽도 되기 전에 잠이 깨어 옷도 입지 않은 채로 5분 내지 십지어는 한 시간 동안이나 떠오른 생각을 적는 일에 몰두하기도 했다. 어떤 날 밤에는 많은 것을 적었으며 또 아무 것도 적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나는 잘못 적어 넣어도 괜찮고, 생활하면서 실수한 것도 마음 편히 적어 넣을 수 있는 값싼 공책을 좋아했다. 나는 기록할 시간을 따로 할애하기 시작했으며, 똑같은 장소, 즉 램프 옆에 놓은 소파에 앉아서 썼다. 나는 여백에다 새 자동차 구입이나 고양이의 예방 접종 등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다. 실제로 기록하는 곳에는 그날에 내가 느낀 반응과 내가 관찰한 것과 결론 등을 써넣었다.

몇 달 뒤에 나는 다시 공책을 사려고

전의 그 상점에 들렀을 때 내가 일지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공책에 제니트라는 이름을 부쳐 주기로 했다. 제 1권인 제니트 1에는 날짜를 적은 기록이 별로 없고, 매일매일의 활동이나 느낌을 적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인 일지의 양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개인 일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적어도 언젠가 적으려는 알 수 있도록 형식을 바꾸었다.

또한 매일 적을 때 내가 어디에서 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여행을 가든, 가까운 친구와 함께 거하든, 어디서나 나는 내가 똑같은 개성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친구를 방문했을 때 나는 개인 일지에는 영적이며 정서적으로 성장케 하는 잠재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철학도와 몇 시간 동안 토론하고 나서 나의 믿음에 대하여 긴 글을 썼다. 일지에 그것을 적는 것은 마치 간증을 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날 밤 기록하면서 내가 일지를 적을 때는 어떤 친구와 함께 할 때보다도 더 허심 탄회하게 솔직한 심정이 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생각을 기록해 나가면 그것을 분석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때로는 기록하는 중에 내가 이기심이나 그릇된 판단에서 나온 태도를 보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때로는 내가 훌륭한 생각을 했음을 알고 기뻐할 때도 있었다.

때로는 일상적인 현상에 대한 나의 반응에 대하여 크게 웃을 때도 있었다. 언젠가 일진이 나쁜 어느 날 나는 큰

글자로 15줄이나 되는 “휴—”자를 적었다. 그렇게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매번 적을 때마다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다. 좀더 큰 신앙을 키우고자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목이나 내용이 나왔다. 그 제목은 “의심이 기어 들었으나 제니트가 격파함”이었다. 어떤 제목은 좀더 조용한 면이 반영되기도 했다. 제니트 3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밤과 낮과 그 밖의 것”에는 내가 반복해서 읽기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나는 별을 보고 그들과 소리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서늘하고 상쾌한 밤을 사랑한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살아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밖에 나가기를 좋아한다. 나는 새로 시작되는 것을 좋아한다. 깨끗한 이불과 깨끗한 잠옷과 깨끗한 몸과 깨끗한 머리와 행복하게 되는 이유를 사랑한다. 내 영혼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의 세상을 사랑한다.”

내 영혼이 항상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좌절감으로 가득 찰 때도 있다. 그럴 때에는 그 9월달 밤에 쓴 글을 읽고 다시 활기를 찾게 된다. 그 직후에 쓴 다른 글을 읽고 격려받을 때도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훨씬 쉽게 견디어 낼 수 있다.”

일지에 적어 넣은 글이라고 해서 모두 깊은 의미가 있거나 재미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기 그 나름대로 매일매일 내가 복음에 귀의하는 것과 나 자신과의 투쟁과 일상 생활 중에 알게 된 계율에서 희열을 찾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하나하나가 다른 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쉽게 견디어 낼 수 있다.”

그 내용은 모두가 나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

가장 친한 친구가 이사갔을 때 나는 재니트 4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써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어떤 친구에게 깊이 생각지도 않고, 편지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뒤에 재니트 5에 이렇게 적었다.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수많은 음성을 뚫고 어떤 고요한 음성이 스며들어 모든 문제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고요한 음성”에 대하여 쓴 뒤에 그 음성을 더욱 깊게 들었다. 그 “음성”이 옳았다. 내가 뒤에 그 친구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자 그는 이미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인생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느껴졌을 때 습관처럼 된 일을 시작했다. 나는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일지를 썼다. 일지를 써 내려가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내가 받은 시련이 애매하고 때로는 웃음을 머금게 하기조차 한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한 심정이다. 미합중국의 한쪽

에서 다른쪽으로 이사를 하거나, 휴가 때 산꼭대기나 고원에 있는 동안에도 나의 일지는 서가나 혹은 경전과 함께 가방 속에 들려 항상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개인적인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매개체가 되었다.

나는 개인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 심오한 사상을 간결하게 기록하여 성찬식 말씀을 할 때,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두 번 그런 목적으로 일지를 사용했으나 그것은 전체적인 유익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일지는 내 인생에 관한 참고서가 아니며, 내 인생을 지도로 나타내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현황판도 아니다.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힘찬 예술 작품이다.

재니트 전집은 15권까지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는 1년 동안 기록한 것이 있는가 하면 몇 달 동안에 기록한 것도 있다. 나는 그것을 모두 다 읽은 유일한 사람이며, 그것을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전집은 값싼 공책으로부터 시작하여 빈 페이지가 있는 특제의 책까지 있다. *

리차드 올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리조나주의 투손에서 8학년에 편입하여 네 명의 친구와 함께 수학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중의 한 명이 자기가 만든 미로를 가져와서, 누가 가장 훌륭한 미로를 만들 수 있나 하는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네 친구들은 미로 만들기를 그만두었으나 나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에서 미로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져 가곤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 미로에 재미를 붙여 베끼기도 했으며 나는 그런 일로 인하여 계속해서 미로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나는 미로를 만들고 싶으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본 영화나 읽었던 책 등 무엇이든지 아이디어가 나올 만한 것에 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언제나 미술 수업을 받았읍니다. 나는 특정한 길을 길게 만들어 나가다가 중간 길이 막히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좋은 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미로를 그리면서 어떤 특별한 속입수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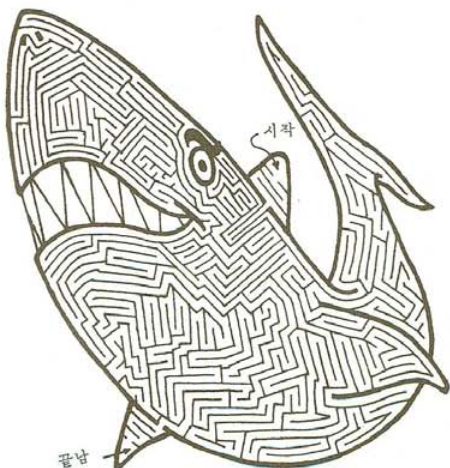
개는 그냥 앉아서 그리기 시작하면 그 동안에 저절로 아이디어가 떠올랐읍니다.”

리차드의 선교 사업 비용을 만들기 위하여 그 미로를 책으로 출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리차드의 아버지였다. 리차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님께 그 돈은 모두 나의 선교 사업 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책이 썩 잘 팔리지 않았으나 차츰 재고량보다 주문이 많아져서 더 많이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천 권 이상을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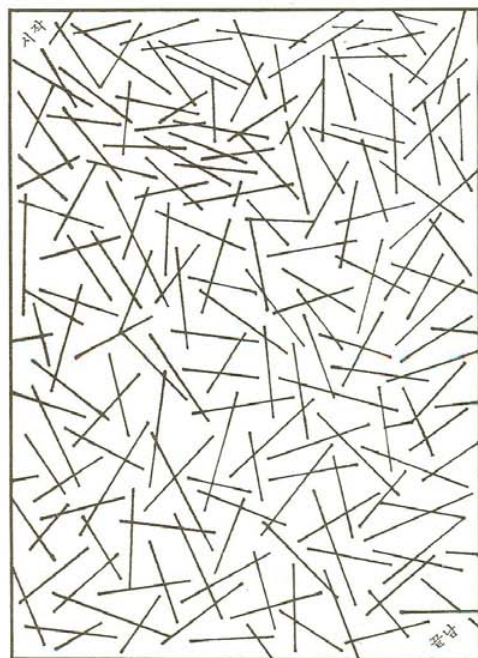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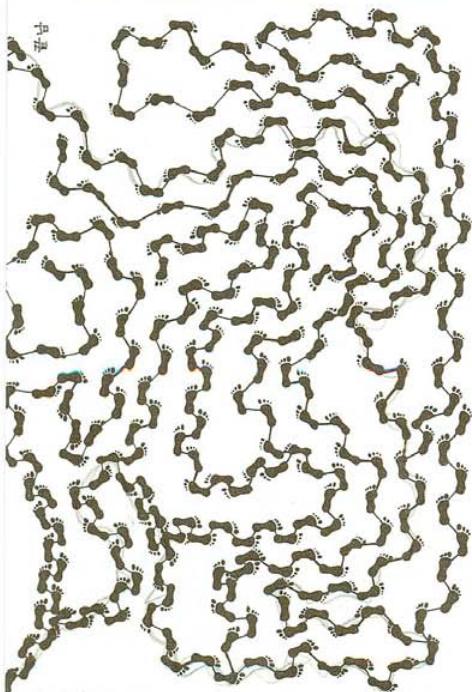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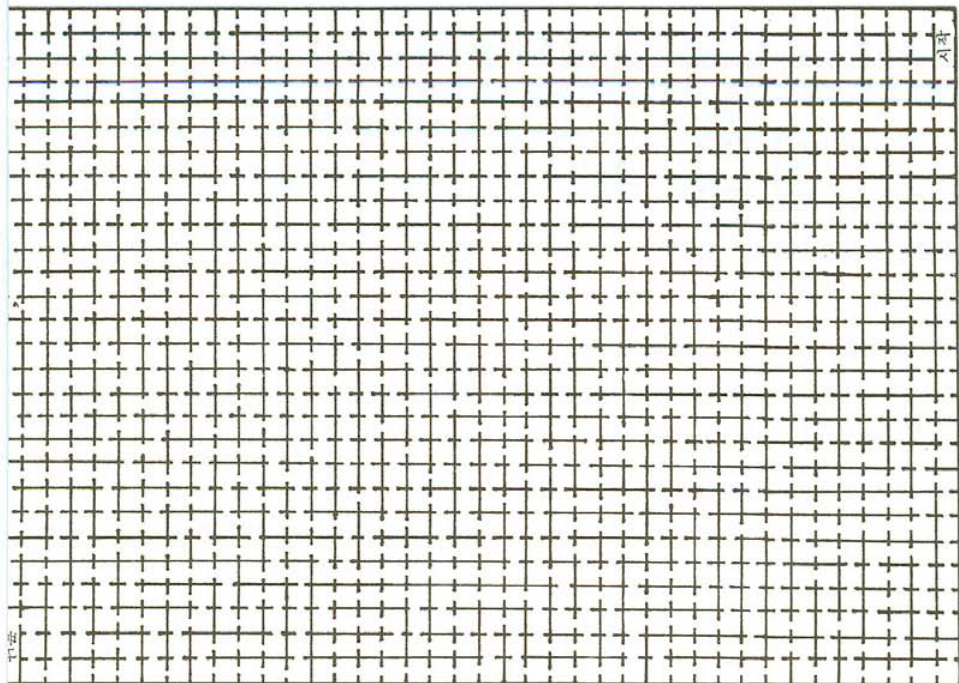
현재 리차드는 텍사스의 산안토니오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미로에 대한 관심은 뒤로 미루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미로를 하나 그리려면 두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교사를 하면서 미로를 그릴 시간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내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귀환하게 되면 다시 화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사업의 한 본보기를 보게 된다. *

미로

맥스웰 티 스톤



미로미로미로미로



엄하면서도 친절한 계명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나는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 후의 정절에 관해서 그 표준을 어느 정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준은 엄하면서도 친절한 일곱째 계명의 일부분으로, 이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대중성이 없는 계명일 것입니다.

이 일곱째 계명은 오늘날 흔히 인용되는 주제도 아니며, 오히려 소홀하게 생각되는 계명이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품행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견해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인간이 다른 어떤 면에서 존경받게 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삼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어려운 교리의 심오한 이면에는 가장 위대한 진리, 즉 가장 값진 원리가 들어 있음을 오래 전부터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는 불경하게 또는 우연히 찾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약속한 대로 순종은 축복과 더 많은 지식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올바른 원리에 순종하면 이해력이 커집니다. (벧후 1:8 참조) 일곱째 계명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하

여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인생은 매우 중요하지만, 극히 일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빨리 이 덧없고 결절 투성이인 세상살이에 맞추어 나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계속될 다음 세상에서의 삶도 그러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을 깨뜨리는 사람이 “무지”(잠언 6:32)하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일곱째 계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퇴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양자가 다 미혼모의 임신을 막고자 합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세번째로 우려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이 이혼율을 증가시키며,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왕국에서 일곱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이 세 가지 관심사를 훨씬 더 능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결의 법에 순종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은 육욕적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할 때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9 참조)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심을 분명히 나타낸 요셉은 이렇게 결론을 맺

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이 계명에 순종한 것은 자기 자신과 미래의 가족과 보디발과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 계명에 불순종하면 우리 영혼에서 성신이 빠져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신은 죄로 가득한 영혼에는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신이 함께 하시는 큰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 지각이나 행위의 기능이 떨어진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주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감각을 무디게 하므로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호색적인 것은 역설적으로 들리기는 하겠지만 감각적인 능력에 대해 그릇되게 찬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감각하는 능력을 잃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 다른 세경륜의 시대에 세 예언자가 말한 대로 “감각없는 자”가 됩니다. (니일 17 : 45, 엡 4 : 19, 모로 9 : 20 참조)

노먼 카즌즈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보고, 어느 것이든지 다 해보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감각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우리의 가장 큰 감응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둔해지게 된다. (“모든 것을 보고 행하되, 감각하지 못함”, 새터데이 리뷰, 1971년 1월 23일, 31페이지)

우리가 감각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은, 스스로 영혼의 감각적인 능력을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정된 더 나은 세상에 속하는 품위와 감정 이입과 같은 정화된 마음을 인식하는 능력을 스스로 둔화시켰던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기적인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 스스로에게 부담감만 줄 뿐인 “쓸모없는 옛” 친구나 친척 및 심지어는 배우자까지 밀어내 버리고 단출하게 생활해 나가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개인이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불순결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자기 자신의 본성과 참된 자기 자신을 적대시하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전 6 : 18, 19 참조) 나는 그것이 우리가 전세계에서 맺은 약속과 우리의 영혼 속에 미묘하면서도

깊이 새겨진 약속도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순결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음을 행한 아버지가 교묘하게 그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그 행위가 자기 부인과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계명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는 약 18년 전에 유타 대학교 캠퍼스내의 학생 와드의 감독으로서 젊은 부부를 결합시키려 했지만, 끝내 잘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불성실하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도우려 애쓰던 중 이 여인이 어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못 남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시킨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행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에서 해임된 몇 년 뒤에 나는 지방 신문에서 그녀가 매음 행위로 체포당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릇된 모범을 보여 신임을 잃은 부도덕한 아버지들을 꾸짖은 야곱의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서 2: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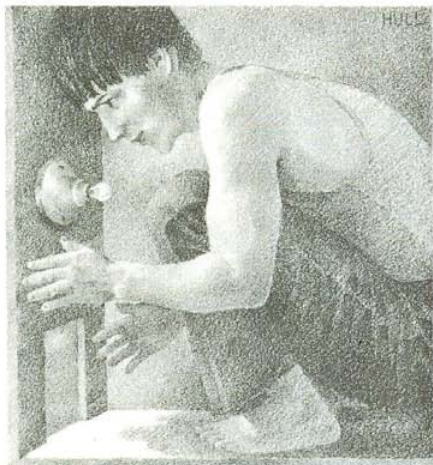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가정 생활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환경을 그렇게 해친 결과는 다음 세대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현명한 철학자인 뱅빌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를 원하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본적인 제도도 그러합니다. 집안이 편안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정부가 존속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그런 계명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듯이 행동한다면 대 혼란이 일게 됩니다. 부모는 횡령을, 성장한 아이들은 간음을 정



당화하게 되고, 손자들이 커서는 모반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누구나 어느 계명을 범할 수 있을까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성병과 임신에 대한 세상의 염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회원들 사이의 정규적인 접점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무엇보다 크게 힘쓰는 것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무감각하게 저질러지는 전반적인 성적 부도덕의 또 다른 결과는 인간에게서 희망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모로 10 : 22)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희망이 없으면 곧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악함과 절망은 무서우리만치 자기 자신을 보장하고 있



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정신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는 엄청난 성적 부도덕으로 인한 것이며, 그 앞에서는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월 듀란트와 에어리얼 듀란트는 그들의 걸작인 인류 역사를 논하는 저서에서 성이란 것은 불길과 같은 것으로 보아, 그 불길을 신중하게 절제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집단이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언급했읍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마지막 권고는 다

음과 같은 보충 의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세상의 의견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이 단호하게 물리치면 다른 사람들도 거의 놀라울 정도로 물리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 다른 사람들이 흠탕물이 묻은 발로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진흙 발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더럽히지 않게 하십시오.

3. 순결과 가정에 충실하는 고리를 개인적으로 강하게 연결시켜 그것이 조부모로부터 부모에게로, 자녀에게로, 다시 후손에게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십시오. 함께 굳게 결합된다는 것은 가장 강한 유대로 맺어져 가까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행위를 통하여 이 계명을 신봉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 간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그들에 비하여 너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고, 시에스 루이스가 적은 것처럼, 여러분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상황은 선한 사람까지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훌륭한 판단력과 함께 튼튼한 다리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빠져 나왔읍니다.

5. 오늘날에는 진부하고 육욕적이고 이기적인 남성과 함께 육욕적이고 이기적인 여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욕망에 쫓겨,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여 한 가지 계명을 깨뜨린 후에 맞본 공허한 자유와 같

은 것입니다. 그때 가인은 역설적으로 “나를 방해할 자는 없도다.”(모세서 5 : 33)라고 말했습니다.

6. 일단 잘못을 범했다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회개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뉘우치고 필요한 단계를 밟는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가 낄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인간의 영혼이 수치심으로 꾸짖음을 당해야 하는 상태라

스름가 즐거운 것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릇되게 주장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8. 우리는 세상의 죄를 경멸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경멸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는 경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멸시와 조롱은 빨리 지나갑니다. 진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 야고보는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



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깨끗하게 되어야만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7. 그릇된 일을 하려는 충동이 일어나면, 아직 그 충동이 미약하고 의지력이 강할 동안에 그 충동을 물리치는 행동을 하십시오. 주저하면 의지가 약해지고 충동이 강해질 따름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선한 일에 종사하십시오. 게으름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 스

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라”(야고보서 4 : 4)

9.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적으로 정복한 것을 뺏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복한 것을 뺏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마치 술에 취한 것에 대하여 신경질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스스로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불순결의 사악함과 그 결과를 피함으로써,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제나 함께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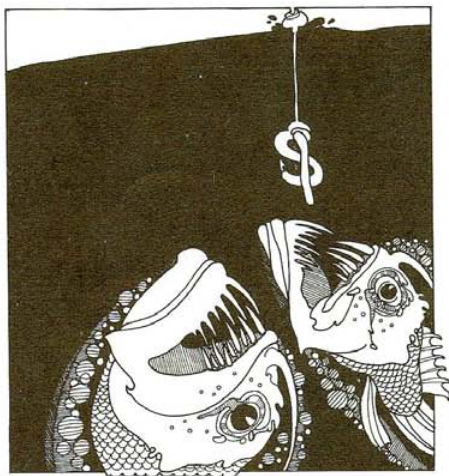
가.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을 알고 달성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더 많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을 알게 됩니다.

바. 또한 우리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하는 결정을 실행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더 빨리 발전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 수준에 이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사. 그 밖에도 고결한 영혼을 갖는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사람이 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모든 압제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욕망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됩니다.

마. 우리는 단순히 욕망에 좌우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현명하게 행동

축복을 받아 개인적인 건전함과 두려움을 모르는 솔직성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서 벗어나서는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됩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일부분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 후의 정절을 지켜 나감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Ancelle del  Signore, cercano la be